

보건복지분과 정기회의 개최결과(2019. 6차)

참여예산 보건복지분과 2019년 6차 정기회의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9. 7. 19.(금) 16:00 ~ 18:00
- 장 소 : 불광보건분소 <정신건강지원센터> 등
- 참석인원 : 11명 중 6명(윤제영, 송미숙, 정상훈, 이명주, 오병란, 정병진)
 - ※ 불참위원 : 이진형, 강봉기, 배은경, 이운주, 김병복
 - ※ 배 석 : 불광분소과장, 정신건강팀장, 강동영 주무관
- 회의안건
 - 불광보건분소 <정신건강지원센터> 운영 설명 및 분소 시설 탐방

□ 회의결과

- 불광보건분소 <정신건강지원센터> 운영 설명
 - ※ 설 명 : 불광보건분소 윤형옥 주무관
 - 사업목표 : 정신질환의 예방, 조기발견, 상담,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 도모에 기여함
 - 사업내용 : 정신질환자 등록·사례관리,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사업, 선별검진·상담,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주민 교육,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, 정신재활·요양시설관리 및 지도점검 등

- 정신건강관리사업

- ▶ 정신재활프로그램 : 인지재활, 음악·미술·원예치료, 생활체육 등
- ▶ 직업정신재활시설 견학 및 사회기술훈련
- ▶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: 쫓겨난 사례관리, 교육, 네트워크 구축
- ▶ 정신건강증진 기반조성: 정신건강심의(심사)위원회 운영, 정신건강증진시설(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의료기관 등) 관리, 정신요양시설 공공후견 감독 등

- 질의응답

- ▶ 센터 직영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?
⇒ 2014. 4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지역과 상황에 따른 즉각적 대응이 용이해짐으로 인해 센터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짐
- ▶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역할은?
⇒ 정신병원 퇴원 여부 심의 및 처우 개선, 입원연장 심사 청구 등
- ▶ 정신질환자 등의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?
⇒ 정신질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
- ▶ 상담사의 방문상담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는데?
⇒ 2인 1조의 형태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. 실제로 폭력의 경험이 있는 상담사도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특히 중요함

- <정신건강지원센> 및 불광보건분소 탐방 후 총평

- ▶ 정신질환 위험인구(38,615명) 중 표적인구(4,197명) 가운데 실제로 등록된 정신질환자의 수(463명)가 상대적으로 약 1/10수준이어서 질환을 앓고 있지만 센터에 등록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

- ▶ 상담사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담사의 정신건강도 함께 관리하는 센터가 되었으면 함
- ▶ 1층의 치매안심센터 이용자가 많고 체험시설이 다양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기대감이 높음
- ▶ 4층에는 한방진료실이 있어 보건소 이용자의 다양한 의료혜택 경험이 가능함

○ 차기회의

- 일 시 : 2019. 8. 23.(금) 오후 2시 ~ 5시
- 장 소 : 은평구청 1층 로비(서울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독려 운영)

□ 회의사진



끝.